특별선교주일



예배·기도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이 예배 자료는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지도자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예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에베소서 2장 1~10절과 요한복음 3장 14~21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배로 부름

인도자: 오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시다.

회중: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도자: 폭풍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화재가 모든 것을 삼킬 때, 홍수가 밀려올 때, 전쟁으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때, 그리고 굶주림이 연약한 이들을 쇠약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응답하도록 부르십니다.

회중: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을 입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회중: *사랑은 치유합니다. 사랑은 도와줍니다. 사랑은 나눕니다. 사랑은 회복의 긴 여정 동안 함께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회중: *우리의 기도와 동행함, 우리의 헌금과 섬김, 우리의 증언은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지가 됩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기억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연대적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함께 우리는 영향력을 만듭니다. 함께 우리의 나눔은 소망과 구호와 지속적인 회복을 일으킵니다.*

다 함께: *긍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목회 기도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열린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고통받는 모든 곳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속에도 계시고, 화재 속에도 계시며, 홍수 속에도 계십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도 계시고, 국경에도 계시며, 난민캠프에도 계십니다. 폭력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계시며, 상실을 딛고 삶을 다시 세우려 애쓰는 모든 곳에 함께하십니다.

오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을 맞아 자연재해와 인간이 초래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홍수와 산불, 지진과 기근, 전쟁과 이주, 강제 이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집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공동체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는 이들, 그리고 소망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근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가 떠난 뒤에도 고통이 계속되는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 또는 인근에 영향을 미친 재난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umcmission.org/work/humanitarian-relief/updates에서 확인하세요.] 삶을 다시 세워 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을 찾아 나선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불안정, 트라우마와

특별선교주일

예배·기도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기의 순간에 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용기와 긍휼로 섬기는 모든 자원봉사자와 재난 대응 담당자, 사례 관리자, 선교사, 협력 기관, 지역교회, 연회,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버거울 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상황에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고 싶을 때도 담대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필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기쁨으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과 조직적인 노력, 옹호와 믿음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이끄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이 잘 준비되고 조직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증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지 재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자도의 실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릴 때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헌금을 축복하시며, 그 헌금이 후원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지친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은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호위원회를 구호와 회복과 재건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긍휼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분, 높이 들려 사랑이 되신 분, 세상의 생명을 위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향력을 위한 순간
(헌금을 걷기 전)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영향력을 위한 순간(Impact Moment)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소망과 치유, 구호와 사랑을 전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들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분쟁과 폭력을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위기를 겪은 후 삶을 다시 세워 가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 모든 순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연합감리교회가 필요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구호위원회의 행정 비용을 지원하여, 일 년 내내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와 선교 사역을 위해 드려진 모든 지정 헌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곧, 구호를 제공하고, 회복을 지원하며,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한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 사역을 통해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가보지 못할 곳에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적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높이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지 교회가 함께 긍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드립니다.

이제 이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와 믿음,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드립시다. 우리의 나눔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역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드립시다.

특별선교주일



예배·기도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감사기도

풍성함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 공동체와 믿음, 기회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을 맞아, 세상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 사역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호위원회의 사역과 위기에 처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모든 나눔의 행위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영향력이 배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구호와 회복, 재난에 대한 준비와 장기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며,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감리교구호주일에 기꺼이 나눌 때, 우리는 재난과 강제 이주, 굶주림, 그리고 긴 회복의 여정을 마주한 이웃을 향해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단순히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테파니 무어 목사·박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전도 담당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소망과 구호, 지속적 회복 사역을 제공합니다.